

호시노재심 뉴스 181 후 2012년 6월 15일 발행



재심 기각에 분노를! 증거를 공개해라!

7·1 도쿄 고등 법원 포위 데모에



오키나와와 후쿠시마의 분노 하나에 -5·13 오키나와(沖縄) 현민대회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모든 증거 개시. 재심개시의 대운동을

6.30-7.1 전국총회에 모이자

7.1 도쿄고등재판소 포위데모를 싸우자



(4·20 도쿄(東京) 고등 법원 포위 데모)

단결의 힘으로 이길수 있다

우리들은 3월 30일의 도쿄고등재판소에 의한 제 2차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마음 속에서 분노를 분출해 전국에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오늘날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결합해서 싸우면 승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세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일본의 원전 54기가 전부 멈췄습니다. 후쿠시마를 선두로 한 광대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복귀 40년" 5.15 오키나와투쟁은 후쿠시마의 분노와 하나가 되어 일미 안전보장조약과 미군기지에 대해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5월 24일 오오사카(大阪)부 야오(八尾)시에 의한 "야오키타 의료센터(八尾北医療センター)반환재판"에서 노동자.주민측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판결을 쟁취했습니다. 더욱해서 5월 31일 호세이(法政)대학의 학생운동을 부수기 위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탄압재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쟁취했습니다. JR(일본철도)에 의한 전면 외부 위탁화 비정규직화라는 공격을 저지한 국철 치바 동력차 노동조합은 국철투쟁 전국운동에서 노동조합 노동자운동을 되살리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목숨과 생활을 파괴하고 정의도 진실도 짓밟는 국가에 대해서 인간적 공동성을 되찾아 단결해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재심을 개시시켜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싸움에 크게 나아가자.

재심기각 결정의 본질

확정판결에서 호시노씨가 했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날조입니다. 당연한일이지만 물적증거는 없습니다. 있는것은 데모 참가자 6명의 "홍술조서"뿐입니다. 이중에서 3명이 소년입니다. 투쟁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상세한 "홍술조서"가 본래의 기억이 아닌 검찰관이 날조한 조서란 것을 "이츠쿠시마 감정서(巖島鑑定書)"는 심리학적 지견과 실험에 의해 명백하게 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수사관의 유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한 효과적인 기억환기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있어서 기억재현이 적은것은 기억환기를 위한 유도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과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관이나 경찰관이 실제로 했던 "기억환기" 즉 취조는 아침식사후 곧바로 시작되어 밤 9 시, 10 시까지 이어졌다고 Kr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 하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식사도

취조실에서 먹게 했습니다. 검찰관은 Ar 증인의 부친에게 당시 17 세의 Ar 증인을 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의 어디가 "부당한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증거 개시를 요구하는 운동

2010년 3월 재심변호단은 34점의 증거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8월에 159장의 사진이 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호시노씨를 찍은 한장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의 철파이프는 새하얀 종이가 감겨진 상태로 "심하게 구타한"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후 검찰관은 증거 개시를 거부하고 재판관은 권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상태로 재심청구 기각을 강행한 것입니다. 원래 재심이라는 것은 무죄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심에 있어서는 보통 이루어지는 재판이상으로 증거 개시가 중요합니다. 세금과 공권력을 사용해 모은 증거는 검찰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후카와사건(布川事件)"에서는 "시체 검안서"가 개시되어 "홍술조서"와의 모순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토쿠시마 라디오상 사건(徳島ラジオ商事件)"에서는 시트에 묻은 토족의 발자국이 25 년이나 뒤에 개시되어 이것이 재심개시의 길을 열었습니다. 호시노씨 무죄의 증거는 검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시초公安부(警視庁公安部)의 "총괄 수사보고서"에는 투쟁 현장을 목격한 민간인 8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중 2 명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 뿐으로 나머지 6 명은 검찰관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개시되면 반드시 호시노씨의 무죄는 증명됩니다. 노동자를 중축으로 광범위한 운동을 조직해서 크게 서명운동에 궤기하자. 전국에 호시노모임을 확대하자.

전국에서 논의를 진행해 6 월 전국총회에 모이자. 여기서 굳게 의사를 일치시켜

모든 증거 개시,재심개시를 구하는 대운동에 나서자. 7 월 1 일 2.5 토쿠시마투쟁을 이은 분노의 도쿄 고등재판소 포위데모에 궤기하자. 모든 인민의 힘으로 호시노 후미아키씨를 되찾자.

"복귀" 40 년 5.15 오키나와투쟁

5.12 신자유주의와 싸우는 데모와 집회



5 월 12 일 전국 노동자 교류센터 제 24 회 임시 확대 전국운영 위원회에 참가했다. 각 직장으로부터의

발언 다음에 국철치바 동력차 노동조합의 다나카 야스히로(田中 康宏)대표로부터 요약한 발언이 있었다. 다나카대표는 올해 이제부터의 싸움의 초점으로서 6.10 국철투쟁 전국운동의 집회 7.16 반 원전 집회 그리고 9월의 하시모토(橋下)를 무너트리는 싸움등을 들었다. 국가의 위언에 대한 주민의 분노에 우리들이 우리들의 책임으로 연대해가는것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 본모습을 꿰뚫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현실이 있다. 규제완화가 사람의 안전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윤만을 추구한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모든 책임과 부담이 노동자를 억누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산산조각으로 해체된다. 그 궁국이 교육기관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인것에 경종을 울렸다. 후쿠시마(福島)의 현실은 무엇인가. 나날이 죽음과 마주하며 살고있다. 그러나 나라는 노동자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저번의 싸움은 노동자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사람 한사람이 정세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 기지.원전에 몸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지고 맞설것을 촉구했다. 그후 즉시 현(県)청사앞 광장에 집합 작은 집회후 국제거리를 "기지 철거 원전을 멈춰라"라는 데모행진을 했다 데모는 주목을 모아 연도는 늘어선 점포의 점원도 보도에 나와서 대열에 호응하고 있었다. 또한 손을 흔들어 찬동을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계속해서 나하(那覇)시민회관에서는 "후쿠시마와 연대해 기지와 원전을 없애라! "복귀"40년 5.12 오키나와(沖繩)집회"가 개최되었다. 연대의 인사에서는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씨가 후미아키씨의 메시지를 낭독 토쿄고등재판소가 내린 재심 기각에 대해 분노를 담아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토쿠시마형무소의 편지 먹칠 문서의 금지처분등의 도리에 어긋남을 따졌다. 전국 재심사무국의 카나야마 카츠미(金山 克巳)씨는 증거의 전면 개시운동과 7.1 고등재판소 포위데모의 참가를 호소했다. 집회는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적극 가담해 오키나와(沖繩)현 전체를 유사(有事)체제로 만들려는 노다(野田)정권을 철저히 탄핵했다. 그리고 "복귀"40년 오키나와투쟁을 ① 원전 재가동을 저지해 모든 원전을 폐로로 ② 기지의 전면철거 ③ "국철투쟁 전국운동"의 확대를 통해 노동조합.계급적 노동운동을 복권해서 신자유주의와의 대결해서 싸우자고 호소했다.

(토쿄 동부.토무라 히로미(戸村 裕実))

메시지 (발췌)

호시노 후미아키

우리들이 싸운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은 오키나와에 기지를 집중하는 72년 "반환"에 의해 전쟁을 향해 전체를 기지화해 동원하는 것임을 용납하지 않고 미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싸움에 경포한 권력의 반동이 호시노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복귀" 40년. 기지에 의해 사는것을 빼앗는 것과 오키나와의 싸움은 국철.후쿠시마를 비롯해 사는것 그자체를 빼앗는 신자유주의와의 싸움과 하나로 오키나와와 모든 노동자 인민의 궁지와 미래를 건 싸움입니다. 분단을 넘어 하나로 단결해서 승리하자. 호시노 해방에 오키나와와 모든 노동자 인민의 해방에 함께 싸우고 승리하자(전문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곧바로 마주해서 극복했다"



호시노 아키코

5월 7일. 흐리고 비. 번호를 불러서 대합실에서 나가자 밝은 소나기였다. 지정된 2번 면회실에서 후미야키를 기다렸다. 나온 후미야키는 건강해 보였다. "진달래는 4분의 3 정도는 저버렸네" "안에는 기온이 조금 낮은거겠지. 지금 만발이야"라는 후미야키 "어머니 어땠어?"라고 나에게 물었다.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머니를 휠체어체로 요양택시에 태워 집으로 대리고간 것이다. 집 마당의 벚나무가 만발이 되는 것에 맞춘 것이 정답이었다. 벚나무를 배경으로 어머니와 오오코우치(大河内)씨 친척의 쿠니오(国男)씨 히사코(久子)씨와 내가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집에서 자기 자리에 앉으니 죽을 수는 없다고 어머니가 말했다"고 전했다. "후미야키도 재심기각 되었을때 처음에는 쇼크 받지 않았어?"라고 물어봤다. "사람 놀리냐고 생각했었어. 거짓을 어떻게 잘 얼버무릴까 하면서 썼기 때문에 말이야. 화는 났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것은 없었어. 나의 경우 기분전환이 빨라. 여러가지 하면서 곧바로 마주하며 극복했다 라는 느낌이야". 운동에도 비약이 필요해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모든 증거 개시를 요구하는 전 인민적 운동을 만든다는 것이 정해져 진행하고 있는것을 이야기했다. 후미야키는 "그것은 필요한 것이야"라고 말했다. 남은시간이 조금밖에 없을때 4월때 면회로 시를 만들었다. "생일의 면회실"을 낭독했다. "요전의 면회상황이 잘 나와있어서 좋았어"라고 후미야키는 말하며 첫날의 면회를 마쳤다.

친구면회를 재개시키고 싶다

5월 8일 흐림. "마침 탁구를 하고 있어서 땀을 흘리고 있던 중이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자면 가져갈 그림이 있어. 내일 말하지만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그린 그림이야. 아사가야(阿佐ヶ谷)시민강좌의 카츠라기 후미코(桂木 文子)씨가 차입해준 그림엽서를 보며 그렸어. 후쿠다 마사오(福田 政夫)군도 엽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줬어. 사진집과 기념우표도 보내줬어. 이 사진집 중에서 구도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후미야키는 말했다. 처우의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내가 감독관에게 의견서를 쓴것처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C로 만들어 C가 2개가 되면 D라던가 D가 2개가 되면 진급 하지 못하게 한다는등의 방식을 쓰면 갱생 의욕을 꺾어버리게 되버려. 신법이 있는데 감옥법의 시대보다 가혹한것을 하고 있었다. 이번의 소장은 아직 모르지만 어느정도는 그런일이 적을것같은 기분이 들어"라는 후미아키. 친구면회도 재개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5월 9일 비. "후미아키의 그림 모두에게 보여줬는데 아이들의 눈이 좋다고 말했었어"라고 나는 전했다. "사망한 아이들도 있으니 내가 되살려 준다는 마음으로 그렸어. 아키코를 달랜다는 것이 제일이지만 말이야". 편지의 일부말소는 그후 어떻게 되었나 물었다. "아사쿠라(朝倉)씨와 이토 요시코(伊藤 美子)씨 정도야. 금지는 몇일 간격으로 계속되고 있어. 마스우에(増上)씨 일지도 몰라. 3일에 한번은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는것 같으니까. 팸플릿 신문의 일부말소는 계속되고 있어". "건강상태는 어때?"라고 물었더니 "혈압은 122-80 두번째가 133-75 아키코가 차입해준 "타메시테 갓텡"으로 마사지와 운동을 하고 있어. 따듯해진것도 있지만 생각나는것이 그것뿐이야". "잘됐내!"라고 나는말했다. "화분증도 올해는 편해서 습진도 작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좋아졌어"라고 말했다. 12일부터 오키나와에 가는 것을 이야기 했다. "비정규직이나 반 원전으로 일어난 청년들이 오키나와투쟁을 짊어지게 되면 오키나와사람들에게도 좋아. 토미타富田晋군에게 열심히 하라고 전해줘"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후쿠시마의 시이나 치에코(椎名 千恵子)씨한테서도 편지가와서 "아키코의 발언에 격려를 받았다고 써있었다. 기뻐다. 재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도 격려가 된다"고 말하며 3일째의 면회를 마쳤다.